



# 서예 書藝

## 일상에서 예술로

CALLIGRAPHY:  
From the Everyday to Artistry

2024. 6. 27. thu - 2025. 2. 28. fri  
인천공항박물관 Incheon Airport Museum

### 1부. 삶을 쓰다 Writing about Life



흥선대원군이 쓴 제일난실 현판  
興宣大院君筆第一蘭室懸板

흥선대원군 이하응 李昰應 (1820-1898)  
조선 19세기, 국립중앙박물관

#### Hanging Board with Heungseon Daewongun's Calligraphy Reading "Hall of Foremost Orchids"

Yi Haeung (Heungseon Daewongun; 1820-1898)  
Joseon Dynasty, 19th century, National Museum of Korea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 이하응은 난초를 사랑해 직접 난초를 키우며 그리기도 했다. 현판의 글씨 '제일난실第一蘭室'은 난초를 길렀던 사적인 공간을 가리킨다. 글씨는 이하응의 스승인 김정희(1786-1856)의 예서와 비슷하다. 현판 좌우에 새긴 난초와 대나무의 글씨의 획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뿐만 아니라 문인의 우아한 품격을 잘 드러낸다.

Yi Haeung, the father of King Gojong, loved orchids, grew them himself, and often painted them. This hanging board is connected to the private space where Yi cultivated his orchids. The calligraphy that he wrote recalls the style used by Yi's teacher Kim Jeonghui (1786-1856). The bamboo and orchid engraved at the left and right end of the board not only harmonize naturally with the strokes of Yi's calligraphy, but reflect the elegance of a literati.







경상經床  
조선 후기, 국립전주박물관

Desk  
Late Joseon Dynasty, Jeonju National Museum

윗판(天板) 양 끝부분은 두루마리 형태이고 호족형(虎足形) 다리를 갖추고 있다. 고려 시대, 승려들이 이러한 경상에서 불경을 읽거나 쓰면서 유행했고, 조선시대에는 양반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천판 아래에는 서랍이 있어 작은 소품이나 종이 등을 넣을 수 있다. 다리는 죽절 형태로 멋스럽게 조각했으며 다리와 다리 사이는 족대(足臺)로 연결했다.

With short legs and wide edges on both sides, this desk, or “gyeongsang” (“sutra table”), could be used for reading or writing. After gaining popularity during the Goryeo period, when they were typically used by monks to read Buddhist scriptures, such desks became a symbol of the Joseon literati. In addition to books, papers, brushes, and ink, the reading table of every literati was equipped with a seosan (書算), a tool used to count the texts that one had read.

먹과 먹집게,  
벼루집  
붓 이미지 없음



붓筆  
20세기, 국립전주박물관

Brush  
20th century, Jeonju National Museum

벼루, 먹과 먹집게, 벼루집  
筆硯, 墨, 硯匣  
19-20세기, 국립전주박물관

Inkstone, Inkstick, Inkstick Holder, Inkstone Case  
19th-20th century, Jeonju National Museum

조선의 선비들은 사랑방을 속기(俗氣) 없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했다. 폭이 좁은 책상 위에는 물건을 많이 두지 않았고 취향에 맞는 문방구를 아껴 사용했다. 한 손에 잡히는 연적, 반쯤 닳은 먹, 소박한 벼루집은 서예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비롯됨을 잘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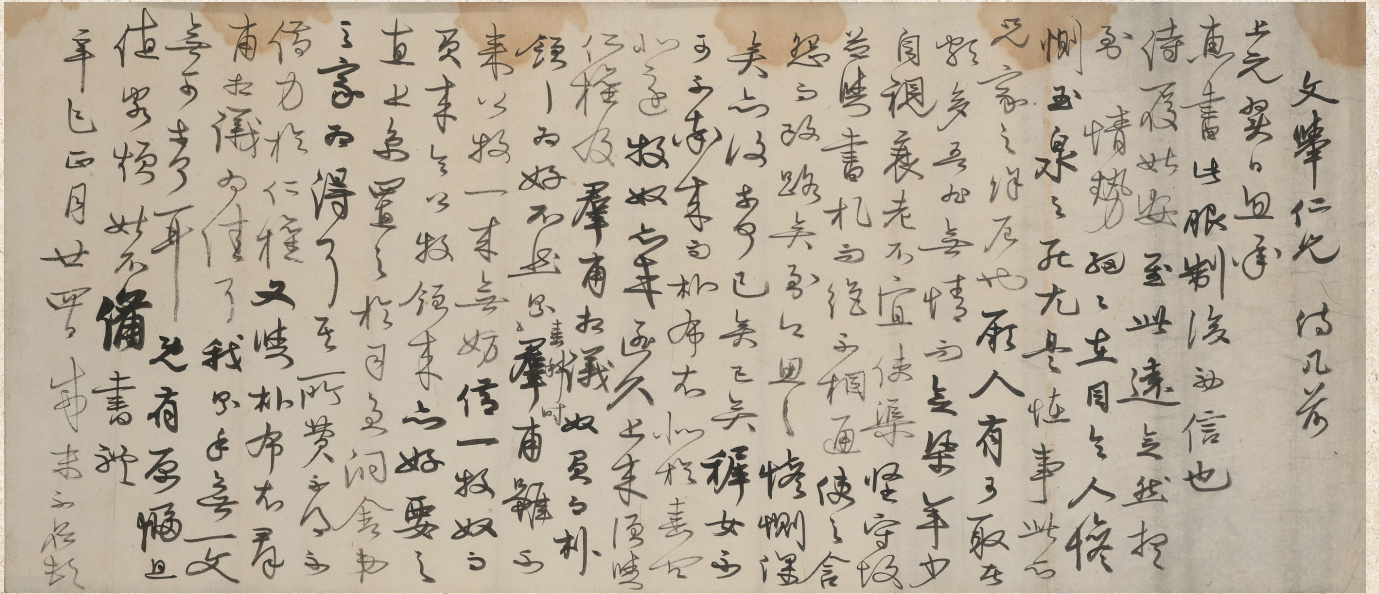
Scholars of the Joseon Dynasty era tried to make their personal sarangbang rooms into otherworldly spaces. They placed a few items on top of a narrow wooden desk, used writing supplies that suited their tastes, and treasured them all. A water dropper that can be clasped with one hand, a half-worn inkstick, and a simple inkstone case aptly show how calligraphy is not something grandiose, but an aspect of everyday life.



두꺼비 모양 연적 白磁靑畫蟾形硯滴  
조선 후기, 국립전주박물관

White Porcelain Toad-shaped Water Dropper  
Late Joseon Dynasty, Jeonju National Museum





정약용이 윤규로에게 쓴 편지  
丁若鏞 書簡

정약용 丁若鏞 (1762-1836)  
조선 1821년, 국립전주박물관

Letter Written by  
Jeong Yakyong to Yun Gyuro

Jeong Yakyong (1762-1836)  
Joseon Dynasty, 1821, Jeonju National Museum

정약용은 조선 후기 실학을 집대성한 학자로 서학西學으로 인해 18년간 유배 생활을 했다. 정약용은 윤규로(1769-1836)에게 편지를 써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벗을 슬퍼하며 그의 어린 딸을 데려오는 것을 상의했다. 행서로 빠르게 쓴 글씨에서 먹의 농담과 획의 강약을 살펴볼 수 있다. 편지를 받은 윤규로는 정약용이 강진 유배 시절 머물렀던 다산초당茶山草堂의 주인인 윤단尹搏의 큰아들로 정약용이 유배에서 풀렸난 후에도 계속해서 교류했다. 편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거文學 인형仁兄께,

대보름(上元) 이튿날 보내신 편지를 문득 받았으니 상을 당하시고 나서 처음 받는 편지입니다. 그럭저럭 잘 지내신다니 멀리서 염려하는 마음에 위안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정황을 떠올리면 하나하나가 눈에 밟혀 서글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옥천玉泉의 죽음은 전혀 예상 밖의 일이며 이 또한 형 집안의 액운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략) 그의 어린 딸을 데리고 오지 않을 수 없는데 박포의朴布衣가 봄쯤에 북쪽으로 돌아올 듯하고, 공목公牧(윤종심尹鍾心)의 종 또한 머지않아 올라올 듯하니 인권仁權 및 못 벗들과 함께 상의해서, 종이 등에 업고 박이 앞길을 나서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략) 요컨대 곧장 서울로 데리고 와 사창동司倉洞에 있는 저희 아우 집에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드는 비용은 인권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없으니 박포의 및 못 친구들과 상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손에 한 푼도 없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고민거리도 많은데 마침 집안일까지 복잡해 이만 다 적지 못합니다.

1821년(신사년) 1월 24일 칙말威末(친척의 낮춤말) 올림

As a scholar who advocated for practical studies (silhak) in the late Joseon period, Jeong Yakyong was exiled for eighteen years due to his pursuits of Western ideas. In the letter, Jeong laments the sudden death of his friend and discusses with Yun Gyuro (1769-1836), the recipient of this letter, caring for the deceased's young daughter. The swift calligraphy in running script shows varied tones of ink and dynamics of speed and pressure in the strokes.



전우가 국씨 가문과 주고받은 편지  
이미지 없음

전우가 국씨 가문과 주고받은 편지  
良翁手札

전우田愚(1841-1922)  
1890년~1917년, 국립전주박물관

Letters Exchanged between Jeon U and  
Family Members from the Kuk Clan

Jeon U (1841-1922)  
1890-1917, Jeonju National Museum

전우는 전북 김제 출신의 유학자로 독립운동가로 유명하다. 이 책에는 전우가 고산군(현재 완주군) 국씨鞠氏 집안 사람들과 주고받았던 편지 80여 건이 붙여져 있는데 학자의 기본 태도부터 사소한 부탁까지 그 내용이 다양하다. 전우가 직접 쓰거나 병으로 남에게 부탁해 쓴 것들이 섞여 있어 그의 개성적인 글씨를 확인할 수 있다. 펼친 면은 전우가 국영환鞠瑛煥의 부탁으로 국씨 가문의 묘재墓齋에 대해 지은 글, 「모화당기慕華堂記」이다. 화당은 구씨의 선조로 15세기 문인 국경례鞠經禮(1428-1507)의 호이다.

모화당기慕華堂記

고산군高山郡 산정리山亭里에 국씨鞠氏 묘재墓齋가 있는데 ‘모화慕華’라 한다. 국씨 선조 중에 화당公華堂公(국경례)이 있었는데, 공公은 ‘충신불기忠信不欺’를 위주로 공부하였다. 관례를 치르며 그의 부친 진사公進士公의 명을 받들어 경례經禮로 이름을 삼고, 곡겸曲謙을 자字로 삼았는데, 이름을 돌아보고 뜻을 생각하며 말했다. “이는 아버지의 가르침이다. 마땅히 죽을 때까지 몸으로 사모해야 한다.” 그래서 그의 평소 언행이 충신忠信으로 예禮를 공부하는 바탕에서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었다. (중략) 이제 그 후손 제익濟翼과 영환瑛煥이 나를 따르며 공부하다가 재실의 기문記文을 부탁했다. 내가 듣기로 충신忠信한 사람은 예禮를 배울만하다고 했는데, 부자父子는 예가 아니면 친해지지 않고, 군신君臣은 예가 아니면 마음이 합쳐지지 않으며, 빈주賓主는 예가 아니면 공경하지 않고, 군자와 소인은 예가 아니면 구분할 수 없으며, 중화中華와 오랑캐는 예가 아니면 구별할 수 없는데, 그 근본은 장경莊敬이다. (중략) 오늘날 일본의 변變에 더욱 마땅히 외우고 생각하며 힘써 본받아야 할 것이다. 이를 문미門楣에 새겨두고 종족宗族들에게 권면하길 바란다.

1906년 2월 담양潭陽 전우田愚 씀.

Jeon U was a Confucian scholar from Gimje, Jeollabuk-do Province and a celebrated independence activist. This book consists of eighty letters exchanged between Jeon and family members from the Kuk clan in Gosan-gun (present-day Wanju-gun). The letters contain various types of information, including the fundamental attitudes of a scholar and trivial requests.



## 2부. 글씨, 예술이 되다. Writing as Art



김규진이 쓰고 그린 난과 대나무, 서예

蘭竹圖·隸書·草書

김규진金圭鎭(1868-1933)  
1922년, 국립중앙박물관

글과 그림은 같은 근원을 가졌기 때문에 서화동원(書畵同源)이라고 한다. 김규진은 이러한 서화 전통을 근대로 이어준 중요한 서화가이다. 중국 유학에서 청나라 서화가들과 교류하며 서법을 익혔고 귀국 후에 자신만의 서법을 완성했다. 김규진의 특기인 대나무와 난 그림, 예서(제5폭), 초서(제6폭)가 함께 있는 이 병풍은 활달한 붓의 움직임을 보여주며 서화동원의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제1-4폭은 화면에 난 또는 대나무와 관련된 글을 썼고 매폭마다 인장을 찍었다. 5폭은 전서기가 있는 예서로 장중하게 썼으며, 6폭은 초서로 부드럽게 썼다.

제2폭

백 세대에 맑은 바람 드높고,  
그 수명은 헤아릴 수 없구나. 청허거사.  
百代淸風高, 其壽也無量. 淸虛居士.

제5폭

오래 살고 늙지 않으니 신선의 집이고,  
하늘이 같은 수명을 인가에 내려주도다.  
長生不老神人府, 昇天同壽對人家.

제6폭

만리의 바람 불어도 산은 움직이지 않고,  
백년을 계속 흘러도 물은 헤아릴 수 없네.  
萬里風吹山不動, 百年流積水無量.

Orchid, Bamboo, and Calligraphy  
by Kim Gyu-jin

Kim Gyu-jin (1868-1933)  
1922, National Museum of Korea

Calligraphy and painting have been perceived as having the same origin and form. Kim Gyu-jin is a calligrapher and painter who linked this tradition of calligraphy and painting to the modern era. This folding screen features paintings of bamboo and orchids (a genre at which Kim was particularly talented), calligraphy in clerical script (the fifth panel), and calligraphy in cursive script (the sixth panel). It shows the vigorous movements of a brush and reminds us of the meaning of calligraphy and painting having the same form. The first through fourth panels bear texts written alongside images that are related to their themes. Kim Gyu-jin's seals are imprinted on these panels. On the fifth panel is calligraphy written in clerical script with a hint of seal script, and on the sixth is calligraphy in cursive script.

The second panel

For hundreds of generations the clear wind has been strong,  
And its lifespan is immeasurable.  
Cheongheo Geo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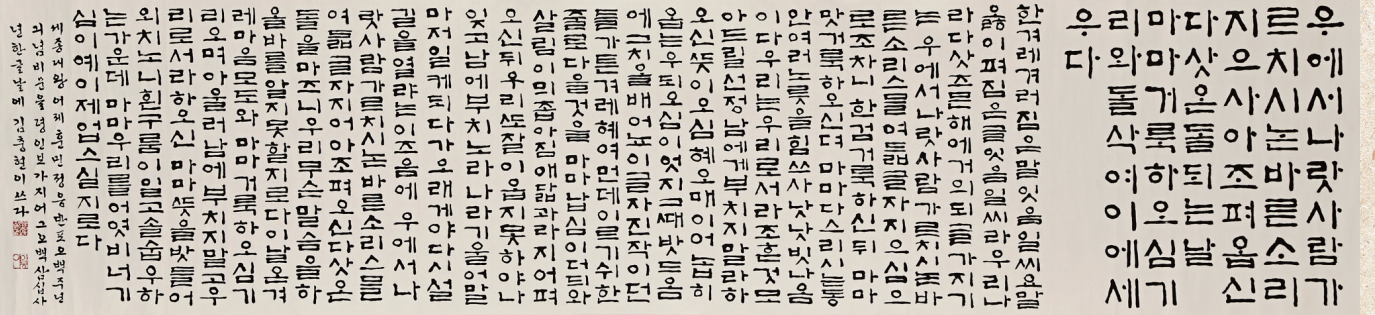
The fifth panel

Longevity and youth reside in the immortals' abode,  
And the heavens bestow the same lifespan as the  
immortals  
upon people.

The sixth panel

The wind blows for thousands of miles,  
but the mountain remains immobile.  
Water flows for hundreds of years, but it is immeasurable.





김충현이 쓴 훈민정음 반포 500주년 기념비문  
 金忠顯筆訓民正音頒布五百周年紀念碑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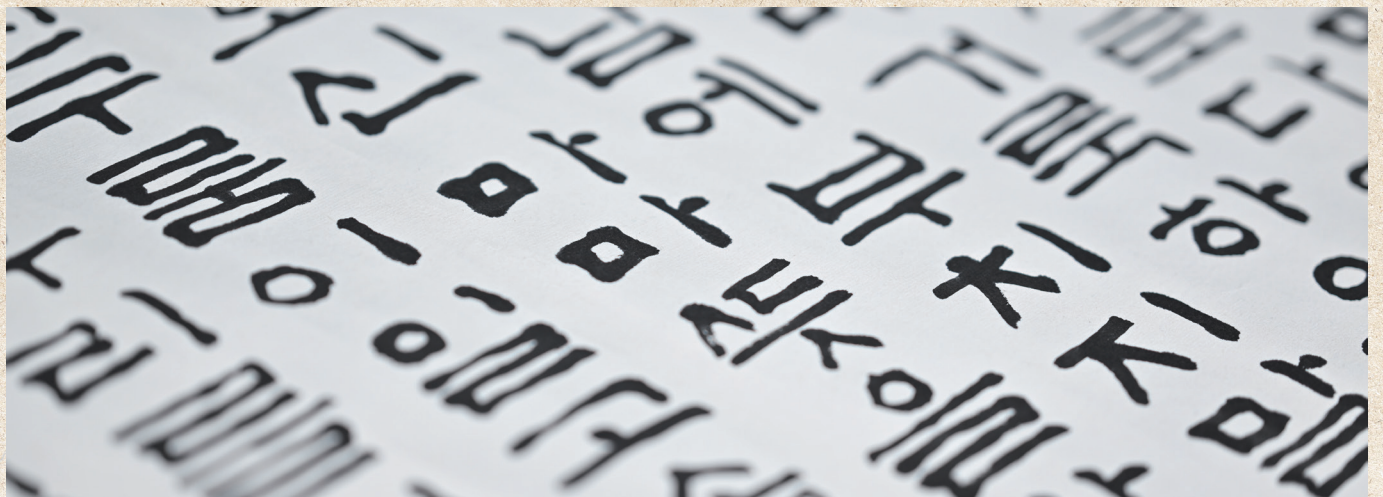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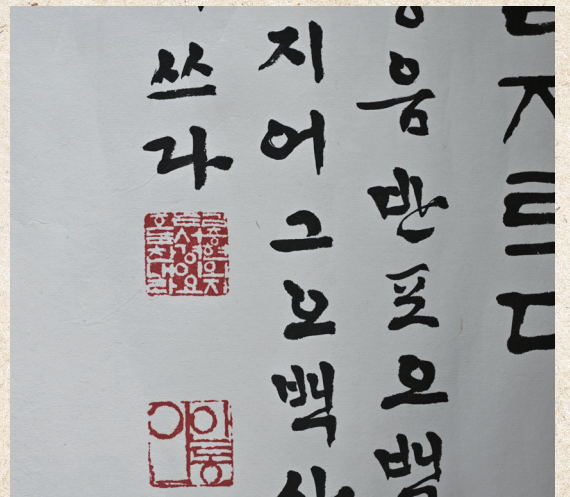
김충현金忠顯(1921-2006)  
 1979년, 국립중앙박물관, 2013년 일중선생기념사업회 기증

Inscription Written by Kim Chunghyeon for the Commemorative Monument  
 for the 500th Anniversary of the Promulgation of the Proper Sounds for  
 the Instruction of the People

Kim Chunghyeon (1921-2006), 1979, National Museum of Korea, Gift of Kim Chunghyeon Commemorative Association, 2013

스승인 정인보鄭寅普가 지은 <훈민정음 반포 500주년 기념비문>(1946)을 한글 고체로 썼다. 청년 시절, 한문 서체와 한글 궁체를 연마한 김충현은 훈민정음과 같은 옛 판본체에 전서와 예서의 필법을 가미한 한글 고체를 탄생시켰다. 이 작품처럼 김충현은 강건한 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한글 고체로 대자大字나 기념비문 등을 쓰며 한글 서예의 범위를 확장시켰다.

This work is an old-style hangeul (the Korean alphabet) version of the “Inscription for the Commemorative Monument for the 500th Anniversary of the Promulgation of Hunminjeongeum (The Proper Sounds for the Instruction of the People)” that his teacher Jeong Inbo composed in 1946. In his youth, Kim honed his skills in calligraphy using both Chinese characters and palace-style hangeul. He also developed his calligraphic style by integrating seal and clerical scripts into the old woodblock-printing style, which can be found in Hunminjeongeum. Kim’s old hangeul calligraphic style featured sturdy brushstrokes and was used for large-character calligraphy and commemorative monuments, thus expanding the scope of hangeul calligraphy.





황욱이 쓴 칠언시 대련

黃旭筆七言詩

황욱黃旭(1898-1993)

1990년, 국립전주박물관

Couplet of Seven-character Verse Written by Hwang Uk

Hwang Uk (1898-1993)

1990, Jeonju National Museum

황욱은 전북을 기반으로 활동한 서예가로 말년에 수전증이 생기자 왼손으로 붓을 꼭 잡고 쓰는 악필법握筆法을 사용했다. 이 칠언시는 문인 송익필宋翼弼(1534-1599)이 친구인 성혼에게 보낸 칠언율시 중 대구이다. 오른쪽으로 쏠린 자형, 울퉁불퉁한 필선, 왼쪽으로 길게 뻗히는 93세 서예가가 완성한 악필법의 특징이다.

꽃은 피려고 할 때 비로소 빛깔이 있고,  
물은 못을 이룬 곳에서 도리어 소리가 없다.  
花欲開時方有色 水成潭處却無聲.

Hwang Uk, a calligrapher active in Jeollabuk-do Province, produced his calligraphy by gripping the brush firmly in his left hand after he developed hand tremor in his later years. This couplet of seven-character verse is part of a poem of eight lines, each with seven characters, sent by the literati Song Ikpil (1534-1599) to his friend Seong Hon. The right-slanting graphic forms of the characters and jagged strokes extending to the left are characteristics of the distinctive calligraphic style perfected by the ninety-three-year-old calligrapher.

Flowers take on color when they are about to bloom,  
And water is silent when it forms a pond.

